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Youth Workers on Youth Activities in the COVID-19 Situation

Chang, Yo Ok

Visiting Professor, Child and Youth Major,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Welfare and Policy, Kwangwoon University

Background: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youth worker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activities at youth facilities is needed at a time when the change of non-face-to-face youth activities and a change in perception of new youth activities are required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youth workers who conduct youth activities in the situation of COVID-19.

Methodology: Nine youth workers working at the Seoul youth training facility were selected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held in April 2021.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nd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method.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5 major topics, 12 sub-themes, and 18 semantic units were derived. First, the changes in youth facilities due to COVID-19 were difficulties in entry barriers, small-scale youth activities, and sensitive quarantine activities. Second, youth activities in the COVID-19 were initially confusing non-face-to-face youth activities, difficulties in non-face-to-face youth activities, evaluation of non-face-to-face youth activities, and efforts to promote youth participation in non-face-to-face activities. Third, the competency needed for youth workers in the COVID-19 was the ability to plan programs and use digital devices. Fourth, the education required for youth workers in the COVID-19 was found to be relationship formation skills, image photographing and editing education, and education using online learning tools. Lastly, the direction of youth activities in the post-corona era was the activation of mixed youth activitie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establish a systematic for non-face-to-face youth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competency of youth workers for non-face-to-face activities, and to change the budget support and evaluation methods of youth facilities.

Keywords: Youth worker, COVID-19, Non-face-to-face youth activities, Qualitative study

Corresponding Author: Chang, Yo Ok

Visiting 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
20, Kwangwoon-ro, Nowon-gu, Seoul, 01897, Republic of Korea
ORCID: <http://orcid.org/0000-0003-4642-9868>
Email: yochang@kw.ac.kr

Received: May 31, 2021 Revised: June 28, 2021 Accepted: June 28, 2021 Publication: June 30,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청소년지도사의 경험 연구

장여옥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아동청소년전공 초빙교수

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시설에서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경험해본 청소년지도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9명을 선정하여 2021년 4월에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주제분석법을 사용하여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결과는 5개의 대주제와 12개의 하위주제, 18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시설의 변화는 진입장벽의 어려움과 소규모 청소년활동 및 민감해진 방역활동이었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초기 혼란스러웠던 비대면활동,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어려움, 비대면 청소년활동 평가, 비대면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프로그램 기획 및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었다. 넷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교육은 관계형성 기술, 영상촬영 및 편집 교육, 온라인 학습 도구 활용 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방향은 혼합형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였다.

시사점: 본 연구는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비대면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청소년센터의 예산지원 및 평가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주요어: 청소년지도사, 코로나19, 비대면 청소년활동, 질적 연구

교신저자: 장여옥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아동청소년전공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ORCID: <http://orcid.org/0000-0003-4642-9868>

Email: yochang@kw.ac.kr

투고일: 2021. 05. 31. **심사일:** 2021. 06. 28. **게재확정일:** 2021. 06. 28. **발행일:** 2021. 06. 30.

I. 서 론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생활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을 강조하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청소년시설은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집단시설로 분류되었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작년에는 운영(일부)제한과 휴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1] 연간계획에 따른 청소년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운영부분 재개 방침에 따라 서울시 시립청소년수련시설은 부분개관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시설의 휴관, 학교 등교 중지 및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었던 지난해에는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일상생활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청소년 445명을 대상으로 한 성남시청소년재단[2]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은 짜증(40.7%)과 두려움(32.4%)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였으며,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는 활동거리(52.3%), 건강관리(20.1%), 학습지원(13.1%) 등이었다. 고양시의 일반 청소년과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3]에서는 청소년의 동영상 시청 및 게임 등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증가하였으며, 일반청소년 51.3%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57.3%가 각각 청소년 활동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었던 청소년들은 외로움이나 두려움 등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꼈으며, 일방적인 공공기관의 휴관으로 인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청소년의 학습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의 온라인 학습지원이 부족한 가정과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교육 불평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4].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의 청소년은 온라인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용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느린 인터넷 속도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5].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주도적으로 학습활동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불가능으로 인해 또래관계 형성 및 공동체성의 결핍 상황 등에 놓이게 되었다[4].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현장에서는 학습격차 및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과 지역사회 활동가 등을 연결하여 학습 지원, 상담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후견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6].

대면활동이 불가능해진 청소년시설도 청소년 현장에 닥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면활동의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활동과 비대면활동이 가능한 혼합활동 등의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활동을 모색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의 경험과 역할을 연구한 전영옥 외[7]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자들은 비대면활동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

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코로나19에 새롭게 요구되는 청소년활동을 위한 지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질적인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 및 청소년지도사와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하는 청소년활동의 비대면 전환은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온라인상에서 관계형성하기, 상호작용하기, 참여증진 방법 찾기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다. 유럽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봉쇄는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의 취소나 무기한 연기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온라인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지역 간의 격차, 청소년지도자의 미디어 및 디지털 역량 부족, 온라인 기반 시설 및 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사업이나 서비스 지원의 어려움이 있었다[8].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85%의 청소년지도자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변화, 고용 불안정 등을 경험하였다[8].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환 및 새로운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는 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 활동 방향 및 청소년 활동 실태, 청소년의 일상이나 경험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1, 2,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이들이 직면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및 청소년지도사 대상의 역량 및 교육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활동 경험은 어떠한 것인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사에게 필요한 역량 및 교육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에 서울시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청소년활동 경험을 살펴보기 위하여 참여자를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청소년활동 및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4년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선정하였다. 총 9명으로 이루어진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II-1>과 같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 인근의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표 II-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성별	소속기관	경력
1차 면접	A1	○○청소년센터	14년 이상
	A2	△△청소년센터	4년 이상
	A3	□□□□청소년센터	9년 이상
	A4	○○청소년센터	6년 이상
	A5	□□□□청소년센터	6년 이상
2차 면접	B1	△△청소년센터	6년 이상
	B2	●●청소년센터	15년 이상
	B3	▲▲청소년문화의집	8년 이상
	B4	●●청소년센터	7년 이상

연구 참여를 의뢰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청소년지도사를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차와 2차에 걸쳐 연구 참여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장소는 ○○청소년센터 회의실에서 2021년 4월 12일과 4월 19일에 각각 2시간씩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면담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질문과 경청을 통해 의미 있는 면담 내용 및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 면접자와의 상호작용 특성 등을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또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일정한 간격 유지, 환기실시 등을 준수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심층적으로 나누면서 풍부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기법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담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유사한 참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는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이다[9]. 이 연구방법은 집단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우는 방법으로 특정한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관찰이나 개별 면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10, 11]. 집단 속에서 면담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연구 참여자들의 솔직하고 반성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12]. 초점집단면담에서는 핵심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반응을 보면서 추가질문이 가능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므로[13]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1, 7]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II-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Braun과 Clarke[14]이 제시한 질적 자료 분석인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표 II-2〉 초점집단 면담질문

질문유형	질문내용
도입질문	•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핵심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시설이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청소년지도사로서 대면활동과 비대면활동의 경험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비대면활동 시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사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종결 질문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용하였다. 주제분석법은 질적 자료의 경향 및 유형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주제를 체계적인 자료 분류를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한다[14]. 본 연구의 주제분석 절차는 첫째, 청소년 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2인으로 구성된 연구자문단과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의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고찰하고 개별적으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둘째, 연구자와 연구자문단은 주요 코드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생성된 코드를 주제별로 분류하면서 대주제와 연결된 하위주제 및 의미단위들을 분류하였다. 셋째, 각 하위주제를 결합하거나 분해하고 대주제별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미단위들이 잘 연결되는지 검토하였다. 넷째, 대주제와 하위주제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미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였다.

3. 연구의 타당성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자료 분석에서 활용되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15]. 삼각검증법은 단일 연구자, 단일 자료출처, 단일 자료수집 방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와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문단이 의미단위 선별, 코딩, 주제 생성 및 분류 등에 참여하면서 단일 연구자의 해석적 오류의 한계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주제 선정,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의 모든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고려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목적 및 절차, 자료의 활용, 비밀보장, 동의 철회 등을 안내하였고, 녹음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전사 및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알 수 없도록 고유 대체 번호를 부여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활동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주제분석법을 적용하여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III-1>과 같으며, 5개의 대주제와 12개의 하위주제, 18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표 III-1> 중심주제 및 하위주제

의미단위	하위주제	주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용인원 제한, 좁아진 입구, 조용한 센터, 제한적 운영	진입장벽의 어려움과 소규모 청소년활동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시설의 변화
방역지침, 감염, 불안, 민감	민감해진 방역활동	
운영방식, 비대면, 줌, 유튜브, 네트워크 불안정, 위기, 새로운 경험	초기의 혼란스러웠던 비대면활동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청소년활동
상호작용, 피드백, 라포형성, 관계형성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어려움	
장비, 와이파이, 디지털 환경, 디지털 기기		
방역지침 변동, 대안적 청소년활동 준비, 업무 과중, 예산지원, 생존문제		
저작권, 혼란, 지침부재, 법적 문제	비대면 청소년활동 평가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 만족도 및 효과성, 낮은 응답률, 참여 확인		
미션, 활동지, 기프트콘, 보상		
적극적인 참여, 다양한 기회 제공, 주도성	비대면활동에서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사에게 필요한 역량
개별 면담 및 상담, 관계 맺기, 성격 파악		
눈높이, 동영상, SNS, 트렌드 파악	프로그램 기획력	
기획력, 차별성, 새로운 아이디어, 비교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	
콘텐츠 제작, 영상촬영 및 편집, 예산, 수준		
소통, 관계형성, 스킬, 전문성	관계형성 기술	
동영상 촬영, 영상 편집, 카메라 작동법	영상촬영 및 편집 교육	
온라인 학습 도구,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학습 도구 활용 교육	
온라인, 대면활동, 비대면활동, 질적 평가	혼합형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방향

1.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시설의 변화

가. 진입장벽의 어려움과 소규모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에 따라서 제한적인 소규모의 청소년 활동 및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형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청소년시설에서는 기존의 대집단 형태나 대면중심의 청소년활동은 축소된 반면에 비대면활동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청소년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청소년시설의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청소년들의 출입이 줄어들면서 청소년시설이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구가 좁아진 것 같아요. 발열체크를 해야 하니까. 물리적으로도 좁아졌지만 진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어졌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3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청소년센터에 오는 폭이 좁아진 것 같아요.(A3)

지금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센터가 조용해졌어요. 평소에는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일을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비명소리 등이 들렸다면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어요.(B3)

반면에 연구 참여자들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을 더 채워줄 수 있다고 하였다. 비대면활동의 활성화로 지리적 제약 없이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예전에 20명이 했던 수업을 10명 정도로 하니까 아이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확실히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결과물도 더 잘 나오고.(A2)

예전에 박람회를 하면 몇 명만 체험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참관하는 형태가 많았다면 비대면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1인 1키트를 갖게 되고 모두 체험을 해요. 이런 부분이 대면보다 좋다는 생각이 들고. (중략)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요.(B2)

나. 민감해진 방역활동

현재 청소년시설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한 대면 및 비대면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강박감을 느낄 정도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여부를 파악하면서 자신들이 계획한 청소년활동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청소년지도사들은 방역 및 안전에 대해 더 예민해지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시설의 전 직원들이 방역활동에 대한 만전을 기울이고 있었다.

방역에 민감해졌다. 직원들 모두 QR코드, 온도체크, 손씻기, 마스크 착용이 강박처럼 예민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중략) 예전에는 뉴스나 정책이 우리 사업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생기는 코로나 인원, 지역 및 학교의 코로나 확산성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는 게 늘 불안해요.(B2)

코로나로 인한 20년과 21년의 방역활동 차이를 보면, 20년에는 누군가와 만나는 것 자체를 중단했다면 현재는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n차 감염으로 가지 않도록 하다 보니 청소년활동도 체온측정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요.(A4)

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청소년활동

가. 초기의 혼란스러웠던 비대면활동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작년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이 아닌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활동을 시작하면서 혼란과 혼동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모두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활동을 직접 실시해야 하는 청소년지도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청소년 가정의 디지털 환경 구축의 편차로 인해 비대면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었다. 또한 비대면활동은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접속 오류나 지연 및 디지털 환경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 청소년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하지만 작년에는 키트를 활용하여 비대면 체험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였으며, 이런 새로운 방식이 청소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초반에 온라인 활동으로 바뀌면서 저희는 계속 오프라인으로 만나서만 프로그램, 축제, 사업들을 진행했다보니 온라인으로 하면은 딱 드는 생각은 유튜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발대식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청소년지도사가 아니라 유튜버인가?”라는 생각을 초반에는 했던 것 같아요.(B3)

작년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담당했는데요. 보통 오프라인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 아이들이 대본을 읽고 진행하거든요. 이걸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마다 가정의 네트워크 사정이 달라서 당일 서버가 중단되고. (중략) 그래서 원래 간담회 하려고 했던 시간은 30분정도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청소년지도사들이 준비하거나 했던 거에 비해 뭔가 더 다른 문제나 위기들이 더 발생했던 것 같다.(A5)

저는 요리체험활동을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키트를 청소년들이 미리 받아서 실시간으로 했을 때 반응이 좋았어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줄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A2)

나.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어려움

청소년 현장에서 시도된 비대면 청소년활동으로 인해 청소년지도사들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어려움은 청소년들의 반응과 상호작용의 부재로 인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관계형성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활동을 진행하다보니 참여 청소년들이 활동을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만족하면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활동 중 궁금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 간의 상호작용의 부재였다. 비대면활동 시 청소년들은 각자의 생각만을 전달하고,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래 간 친숙해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저는 온라인으로 교육과 실습을 했었어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코딩이 뭐야?”라고 질문하면 바로 피드백이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코딩이 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확인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문제가 많아요. 피드백이 어려워요.(A5)

제가 작년 6월에 자치단 사업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6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전혀 라포형성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회의를 진행하면 일대일 이런 식으로 회의하는 느낌. (중략) 온라인 회의할 때 자기

생각만 전달하고, 또래끼리 관계형성이 어려워요.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B3)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어려움은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설비 부족 및 개별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보유의 문제였다. 청소년시설별로 디지털 장비 보유 및 서버 구축 등의 디지털 환경에서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질의 비대면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의지나 열정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가정마다 디지털 기기의 보유 정도와 네트워크 환경 구축이 상이하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비대면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점도 드러났다.

저는 장비의 한계를 느껴요. 누군가에게 맡겨서 영상으로 강의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편집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은 편집기를 돌릴 만큼 좋은 사양은 아니고, 카메라와 마이크도 너무 한계가 있고. 센터 안에서 실시간으로 하려면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안정적인 공간이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지 않고요. 공간이나 스튜디오가 있어도 여러 팀에서 각자 사업을 하다 보니 동시간대에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B2)

모든 장비의 세팅. 우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어느 정도의 환경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전달해줄 수도 있고, 센터별로도 상황이 다 틀려요. 어떤 센터는 세팅이 잘되어 있지만 아닌 곳은 노트북에 캠을 달아서 겨우 보여주고요.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 노트북에 tv까지 연결해서 보는 반면에 집에서 핸드폰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체험하고 키트를 만들 때 어려움이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A3)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에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서 의욕상실을 경험한 것으로 보였다. 청소년지도사들은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방역지침 변동에 따른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예전에 비해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사항들이 늘어났고, 복잡한 업무절차 및 업무과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청소년시설 유형에 따른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자립형 청소년시설의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시설이 휴관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고,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시설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지 등의 생존문제에 따른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하다보면 우천 시 대비 프로그램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단계별로 방역지침에 따라 구상을 해야 하거든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A5)

단위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인원제한도 생각해야 하고, 거리두기 단계도 생각하고. (중략)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 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비대면일 경우 예산, 인원도 따져야 하니까.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있을까라는 회의감도 있었어요.(B4)

별로 느끼지 못했던 자립형과 지원형 기관의 생존문제에 봉착했어요. 지원형은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립형은 예산을 보존해주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어렵다 보니, 결국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A4)

작년에는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지원금을 더 모아서 시에서 보존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자립형은 원래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시기가 계속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수익형 구조가 힘들어요.(A3)

넷째, 청소년지도사들이 경험하는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어려움은 저작권 관련 문제였다. 저작권 문제는 청소년시설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이나 포스터의 이미지 및 글꼴 사용 등과 강사 섭외 시 이들의 동영상 재사용 및 비용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관공서에 저작권 관련 문의 및 질의를 시도하였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들은 저작권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담당부서에서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줌으로써 저작권 문제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저작권 관련해서 저희는 방송통신위원회, 교육청, 서울시, 구청에 질의를 넣었는데 어느 누구도 명확히 답변을 주지 않고 “지침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관들에게 다 전화를 했는데 다 각양각색이고. (중략) 실제로

글꼴은 저작권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포스터 만들기를 싫어해요.(B2)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있었어요. (중략) 강사들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프리랜서도 생업이 힘든 상황인데 동영상을 재사용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기준이 모호해요. 여러 곳을 찾아보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재사용 시 강사에게 몇 퍼센트를 주겠다. 이걸 계약하면서 진행을 했어요.(A1)

작년에 진로특강을 비슷하게 했는데. 강사 선생님이 “이거 한 번만 사용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고 찍었어요. 약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B4)

다. 비대면 청소년활동 평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 평가는 전반적으로 온라인 설문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도 네이버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한 청소년시설들이 있었지만 비대면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온라인 설문지가 일반화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와 다르게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성실히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낮아서 응답율과 회수율이 상당히 낮은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활동에 대한 효과성이나 만족도를 검증하기 어렵고, 학교에서 학습격차가 발생하듯이 청소년활동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단체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지면으로 나누어 주거나 보이는 상황에서 바코드를 찍어서 네이버폼으로 받았어요. 저희가 보는 앞에서 할 때는 물어보면서 확인하니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 말에는 학교단체 400명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회수는 50명밖에 안되었어요. 이런 경우 실제로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었는지? 아이들이 참여를 했는지? 제대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A5)

예전에는 프로그램 끝나고 설문지를 하니깐 아이들의 만족도를 알 수가 있었고.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눈빛이나 표정으로 알 수 있었는데. 비대면화 되면서는 QR코드로 설문을 하고 있어요.(B2)

비대면으로 청소년활동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효과에 대한 편차입니다.

청소년활동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효과가 매우 높겠지만 관심이 없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활동은 그냥 틀어놓고 청소년지도자만 떠들고 있는 상황이니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학습격차가 있듯이 청소년분야도 동일하지 않을까요?(A4)

라. 비대면활동에서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비대면활동에서는 대면활동만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들은 비대면활동 시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활동에서 청소년들에게 미션을 주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미션을 잘 완수한 청소년들에게는 기프티콘이나 선물 등의 보상을 주고 있었다. 특히, 활동지와 같은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퀴즈출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비대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있었다.

작년에 체험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애들이 잘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모든 회기마다 미션을 줬어요. 매 회기마다 질문에 답을 달게 하는 방식. 그나마 이해를 하고 답을 써야 하니까 참여율이 있더라고요.(A1)

이전에는 수업을 하기 위한 도구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활동지가 훨씬 중요해졌어요. 영상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활동지를 더 넣어서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활동지를 보면 아이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B2)

아이들에게는 선물, 기프티콘, 상품권을 줬어요. 만날 수 없으니까요. 물론 이걸로 아이들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선물에 따라 적극적으로 바뀌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장 손쉽게 보상해줄 수 있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벤트성 선물인 것 같아요(A3)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활동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직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비대면활동 중 청소년들에게 직접 정보를 찾고 탐색하는 시간을 준 경우에 청소년들이 더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하여 만드는 카드뉴스를 제작 할 수

있는 기본 정보만 제공해주어도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훨씬 감각적으로 간단명료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즉, 비대면활동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자율성과 주도권을 부여한다면 이들은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청소년지도사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나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 같다.

저는 비대면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었어요. 오히려 제가 못 찾았던 정보도 아이들이 구글링을 잘해서 찾는 경우도 있었고, 본인들이 정보를 찾고 검색을 하니까 습득도 더 빨라지더라고요.(B1)

생각보다 애들이 우리가 활동할 공간이나 기회를 주면 자기들이 스스로 잘 하더라고요. 작년에 진행했던 온라인 봉사활동 중에 아이들이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면 추천해서 상품을 주고 했었는데, 저희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카드뉴스 제작방법을 저희가 알려주니까 자기네들이 성인이나 전문가들이 만든 것처럼 작품성 있게 만들어서 저희들은 놀랐어요.(B4)

그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이들의 성격 및 관심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비대면활동을 하기 전에 청소년의 성격, 성향이나 흥미를 파악하고 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청소년들의 반응이 없거나 대답하기를 주저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운영위원회나 동아리하면서 아이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과 관계형성을 해야 하는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니까. 개별면담을 많이 했어요. 학교 선생님처럼 일대일로 면담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관계 쌓고,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해야 아이들이 회의할 때 좀 더 특성을 알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A5)

저는 작년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맡아서 운영을 했어요. 몇 해 동안 같이 해왔던 친구들은 관계형성이 되어있었는데 신입위원들은 전혀 만난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친해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성격이나 성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중략) 참여하는 친구들이 적극적이고 목표가 뚜렷하면 자기 목소리를 내지만 내성적인 친구들은 오히려 채팅으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있고,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B4)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의 흥미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 청소년지도사들은 유튜브나 SNS 도구를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즉, 온라인 매체에 더 친숙한 청소년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는 스스로 학습하고 배워나가기 위한 자기 계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영상들을 많이 봐야 아이들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애들의 눈높이에 맞는 걸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똑같은 동영상을 각 지역마다 배포를 하더라도 지역마다의 수준과 환경이 다르잖아요. ○○구에 보낼 때는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자막을 더 써야하고, □□구랑 할 때는 그림을 더 많이 넣어야 하는 특성이 있어요.(A5)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할 때는 청소년의 관심사가 뭔지 트렌드를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어떻게 하면 포스터가 눈에 확 띄어서 친구들이 참여하게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해요. 자료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직원들끼리, 팀끼리도 회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월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B4)

작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익숙해지는 과정들 때문에 평상시보다 이것저것 자료도 엄청나게 많이 찾아보고, 일부러 영상들도 보고, 요즘 트렌드가 무엇인가 찾아도 봤어요. (중략) 제가 안하던 SNS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B3)

3.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사에게 필요한 역량

가. 프로그램 기획력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비대면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 속에서 창의적이면서도 독특한 기획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청소년지도사들은 다른 청소년시설과의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들에게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고민들이 많았다. 비대면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각 청소년시설의 비대면활동이 전국적으로 함께 공유되는 상황이므로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시설에서 경험해볼 수 없는 새

로운 프로그램과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청지사는 기획력이 중요해요. 청소년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좋은 아이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B4)

기획력이 필요해요. 프로그램에 차별성이 없어요. 찾아보면 다 비슷하고, 어떤 것을 해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A1)

지금은 비교가 더 잘되는 것 같아요. (중략) 지금은 온라인에 콘텐츠가 다 공개가 되고, 어느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비슷하게 가다보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빨리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기획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A3)

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청소년지도사들은 외부 업체에 맡겨서 질 좋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지만 예산문제로 이런 제작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상 촬영 및 편집 등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SNS 활용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제는 디지털 촬영, 편집, 영상을 다룰 수 있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있어야 해요.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많이 하니까요. SNS를 활용하는 법도 알아야 해요. 홍보를 하려면 올려야 되고, 아이들에게 될 알려주려면 내가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A3)

촬영기법도 알아야 하고, 직접 편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수준 높은 편집은 할 수가 없는데 예산부분 때문에 제가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학교에 제공해서 대단위로 애들한테 보여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B4)

4.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사에게 필요한 교육

가. 관계형성 기술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활용 능력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비대면 상황에서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소년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관계형성의 어려움은 전체 온라인 청소년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대면 상황에서 친숙하면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관계형성이나 소통에 필요한 전문적인 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통방법 이런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B3)

청소년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스킬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안 되는데 성격을 바꾸기 보다는 약간 이럴 때는 아이들이 반응을 잘하더라. 몇 가지 기준을 알면 좋을 것 같고. 라포형성에 좋은 방법을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B4)

나. 영상촬영 및 편집 교육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청소년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다 보니, 디지털 기기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지도사들이 질 좋은 콘텐츠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나 다른 시설들과 함께 공유할 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수준의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해야 만족감과 자부심이 생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동영상 촬영법이나 편집기술 등 비대면 청소년활동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명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카메라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해요. 모르니까 핸드폰으로만 대충 찍어서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A5)

영상을 잘 찍는 방법이라든지, 영상편집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교육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략) 교육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걸 배워왔는데 장비가 없어서 활용할 곳이 없으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B2)

다. 온라인 학습 도구 활용 교육

연구 참여자들은 패들렛, 멘티미터 등과 같이 활용 가능한 온라인 학습 도구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비대면활동에서 다양한 플랫폼과 온라인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청소년지도사들은 온라인 학습 도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온라인 학습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지 등 막막함을 언급하였다. 교사대상으로 e학습터 사용법이 제공되는 것처럼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온라인 플랫폼이나 도구 사용법에 관한 안내서도 필요하며,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학교와의 연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저는 패들렛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주제를 배경에 깔아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데. 패들렛도 알게 된지 얼마 안됐거든요. 활용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도 정리가 되어서 매뉴얼 형태로 줬으면 좋겠어요.(B3)

청소년센터에서 쓸 수 있는 온라인 도구나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못하니까요.(B4)

학교는 구글 클래스룸을 써요. 모든 학교 아이들이 다 쓸 줄 아는데. 정작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애들한테 뭘 다운받으라고 하면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런 시스템 안에 저희를 좀 넣어주면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략) 학교랑 같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클래스룸을 모르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클래스룸을 물어봐야 하니까. 우리는 왜 이런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하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B2)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방향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의 청소년활동의 방향은 소규모 중심의 대면 및 비대면의 혼합형 청소년활동이었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증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등으로 청소년시설이 예전처럼 대규모 청소년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물리적 및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비대면활동의 장점을 활용한 청소년활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으로 인해 양적인 측면의 결과 중심에서 질적인 측면의 결과 및 성과평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양질의 대면 및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대규모로는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 원하는 니즈는 소규모 활동의 다회차가 될 것 같아요. 소규모로 해서 직원도 더 늘려주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A3)

소규모 활동을 하다보면 양적인 활동에서 질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평가도 양적보다는 질적인 것을 더 많이 요구하겠죠.(A5)

거리적, 물리적,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어야 해요. 예전에는 진짜 뛰어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섭외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제주도나 대구에 있는 강사도 섭외할 수 있어서 질 좋은 수업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현장체험도 주변지역에서만 했다면 온라인화가 되어서 다른 지역의 수업을 영상으로 볼 수 있고, 더 좋은 지역에 있는 더 좋은 직업군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사업도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B2)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청소년들은 집에서든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들레길 오리엔티어링처럼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현장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활동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애들이 쉽게 참여하고 결과물도 빨리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실적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많은 인원이 와서 몇 백 명 만족도 하면 양적인 결과위주로 했었는데. 소수로 하니까. 질적인 면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B4)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9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청소년시설의 변화, 비대면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사에게 필요한 역량 및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시설의 변화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휴관 또는 부분 개관이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일이 어려워졌으며,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면서 소규모 중심의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졌다. 주 이용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청소년시설은 예전보다 조용해지고 청소년시설의 주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둘째, 초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청소년활동은 혼란의 시기였다. 처음 접하게 된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활동은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영옥 외[7]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체험활동을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이런 결과는 중학교 음악교사들의 온라인 음악 수업이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발견했다[17]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지도사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과 청소년 가정의 디지털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초기에는 비대면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연구결과는 적절한 디지털 장비를 갖추지 못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학습 및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7]와 동일하다.

청소년지도사들의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어려움으로는 청소년의 피드백 및 반응 부재,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설비 부족, 방역지침에 따른 청소년활동 운영 변동 가능성 및 예산 부족, 저작권 관련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청소년시설의 예산지원 및 고용 불안정은 유럽 국가들의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8]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평가 측면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사들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낮은 응답율로 인해 프로그램 및 활동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대면활동에서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프로그램 중에 끊임없이 퀴즈나 미션을 주고 기프티콘이나 선물 등으로 보상을 제공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중심의 비대면활동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비대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검색하도록 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하도록 하는 등의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청소년지도사는 개별적인 만남이나 상담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사전에 관계형성을 맺으려고 노력하였으며, Z세대인 청소년들의 특성과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노력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현장의 변화에서 청소년지도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는 프로그램 기획력과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활동 운영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욕구변화, 비대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기대 등도 달라졌다. 이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이 대면 및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는 청소년지도자가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7]와 동일하다. 또한 대학생의 온라인 수업의 질 차이 발생원인 중 하나가 교수자의 정보통신기기 활용 능력 차이라는 선행연구[18]와도 비슷하게 청소년지도사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지도사는 영상촬영 및 편집 등과 같이 디지털 매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양질의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계형성 기술, 영상촬영 및 편집 교육, 온라인 학습 도구 활용 등의 다양한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친밀한 소통이 불가능한 비대면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활용 가능한 관계형성 및 소통기술을 습득하고 줌보드와 패들렛 등의 온라인 학습 도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을 뛰어넘어서 과정별 영상촬영 및 편집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의 교체 및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지도사들은 청소년시설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업무를 당연히 여기면서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열악한 디지털 장비 및 환경으로 인해 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음의 한계를 느끼며 좌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방향은 소규모 중심의 혼합형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예전과 같은 대규모의 청소년활동은 당분간 실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가방식도 양적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질적 중심의 평가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 청소년활동에서 양적 판단의 지표였던 인원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1]와 동일하다. 또한 물리적 및 지리적 제약이 없는 비대면활동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현장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질의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설계, 운영,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시설에서는 비대면 청소년활동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지도사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방역지침 준수사항처럼 영상 제작 및 송출, 영상 재사용 등 저

작권 문제에 대한 서울시 또는 정부의 지침을 통해서 비대면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지도사 대상의 비대면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이 시급하다. 디지털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은 청소년지도사의 개인적 관심, 흥미, 능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들이 비대면 청소년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적인 과정 및 수준별 디지털 및 미디어 활용 능력 과정 등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비대면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도구 활용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기점으로 청소년시설의 예산지원 및 평가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수익사업 중심의 청소년시설이 아닌 청소년을 위한 목적사업 중심으로의 청소년시설의 운영방식이 변경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이용률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적 평가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서울시 청소년 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에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경험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수의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거나 양적연구, 청소년시설유형별 청소년지도사의 풍부한 경험에 대한 연구 등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연구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대면활동 및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의미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활동 경험은 청소년지도사들의 경험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 대상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혼합형 청소년활동의 방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고필재, 김용진, 권일남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 활동 방향과 과제 탐색.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pp. 21-41. (Ko PJ, Kim YJ, Kwon IN (2020). A Study on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Youth Activities in the COVID-19. The Journal of Korea Youth Activity, 6(4), 21-41)
2. 성남시청소년재단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법적 감염병 확산에 따른 청소년 활동의 대안과 전략. 이슈페이퍼, 1, pp. 1-4.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2020). Alternatives and strategies for youth activities according to the spread of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s. Issue Paper, 1, 1-4)
3. 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2021.2.5.). 코로나19, 고양시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결과. https://www.gcyf.or.kr/sb/l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09
4. 김경애, 유예림, 이성희, 한효정, 김민정, 김민희, 임은미 (2020).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20-23. (Kim KA, Yu YR, Lee SH, Han HJ, Kim MJ, Kim MH, Lim EM (2020). A Qualitative Study on Disadvantageous Experience of Students during the Spread of COVID-19.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R 2020-23)
5. 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2020-08. 경기도 교육연구원. (Lee JY, Park MH, So MY, Ahn SH (2020). Covid-19 and education: Focusing on the life and awareness of school members. Issue Paper 2020-08.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6. 뉴스1 (2021.4.6.). 서울교육청, 교육후견인 도입...취약계층에 키다리 아저씨. <https://www.news1.kr/articles/?4265388>
7. 전영욱, 손규태, 이미나, 이지은, 정은정, 조유담, 최선미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의 경험과 요구되는 역량.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1), pp. 1-27. (Jeon YU, Soh KT, Lee MN, Lee JE, Jeong EJ, Cho YD, Choi, SM (2021). Youth Workers' Experiences and Required Competencies under COVID-19.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7(1). 1-27)
8. O'Donovan, J., & Zentner, M. (2020).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youth sector. European Union & Council of Europe. <https://pjp-eu.coe.int/documents/42128013/72351197/Summary+13+Oct+2020.pdf/c8808ff7-25be-f7f9-3504-b2a189a64bd0>
9. Glesne, C. (2016).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Pearson. One Lake Street,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10. 최성광, 최미정 (2021). 코로나 19에 대응하며 현장교사들이 경험한 'K-교육'에 대한 FGI (Focus Group Interview)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5(2), pp. 179-189. Choi, SK, Choi, MJ (2021). Focus Group Interview(FGI) Study on 'K-Edu' Experienced by School Teachers In COVID19.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5(2), 179-189)
11. Morgan, D. L. (1997). Focus group as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12. Gibson, B (2002). Learning from focus group discussions. In Johnson, E.(eds.), Teachers' narrative inquiry as professional development. NY: Cambridge Univ.
13.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개정판). 서울: 박영스토리. (Yoo KW, Jung JW, Kim YS, Kim HB (2018).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Parkyoungsa)
14. Braun, V., & Clarke, V. (2012). Thematic analysis. In H. Cooper, P. M. Camic, D. L. Long, A. T. Panter, D. Rindskopf, & K. J. Sher (Eds.), APA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Vol. 2: Research designs: Quantitative, qualitative, neuropsychological, and biological (pp. 57-7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5.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Cho, YH (1999).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Cases. Seoul: Kyoyookbook)
16. 윤초희, 안홍선, 장환영 (2019). 중등학교 기간제교사의 교직 경험과 요구에 대한 질적 분석: 초점집단면담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7(4), pp. 61-88. (Yoon CH, Ahn HS, Jang HY (2019).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Professional Experiences and Needs of Secondary School Fixed-Term Contract Teachers. Korean Education Inquiry 37(4), 61-88)
17. 임은정, 권수미 (2020). 비대면 음악 온라인 원격 수업 실태 연구. 예술교육연구, 18(3), pp. 165-184. (Lim EJ, Kwon SM. (2020). A Study on the Status of Non-face-to-face Music Online Remote Classes.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8(3), 165-184)
18. 이용상, 신동광 (2020).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교육 실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23(4), pp. 39-57. (Lee YS, Shin DK (2020). An Investig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Online Classes in the Untact Era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3(4), 39-57.